

청소년박람회 큰 인기속 마무리

미래존 · 진로존 · 행복존 · 창의존 등
다 박람회 행사와 차별 큰호응 얻어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는 군산에서 열린 전국 청소년의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군산시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가 공동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진행됐다.

올해 박람회는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존 다양한 진로와 직업군을 탐색하는 진로존, 사회공헌 활동을 공유하는 행복존 청소년들이 개와 재능을 발휘하는 창의존 가상재난 대피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존과 청소년 휴게존에 전국 120여개 단체, 173개 체험부스를 운영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3D프린팅, 코딩, 드론체험, DIY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이 큰 인기를 얻었

으며 상호 협력과 창의적인 역량 향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사장을 구성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적극 반영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의 토크콘서트, 공부의 신 강성태 강사 특강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홍병희 교수의 4차산업혁명 관련 강의, 주한 호주대사 제임스 최 글로벌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의 유익한 강의들이 진한 감동을 남겼다.

특히 행사장 주변에 야외공연장을 별도 설치해 행사기간 상시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을 진행하는 등 수많은 청소년들이 축제를 즐기고 가을을 맞이하는 지리가 됐다.

올해 행사를 개최한 군산시는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청소년박람회 경유 특별 시티투어버스 운영, 군산 및 익산 일원 셔틀버스 운행, 근대역시박 물관 및 주요관광지 청소년 무료개방,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거리 버스킹 등의 편의제공과 불거리를 제공했으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시민경찰 등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진행됐다.

1,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마무리했다.

폐회식에 참석한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에서 3일 동안 청소년 여러분들이 보여준 빛나는 눈빛과 밝은 웃음,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언제나 기억하겠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찾고 밝은 미래를 펼쳐나가기로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행사 기획에서 연출까지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를 모토로 제1회 청소년정책추진대회, 청소년모의선거, 박람회 최초 개·폐막식 청소년사회자 진행, 청년 푸드트럭 운영, 역대 대학생봉사자 최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청소년이 주도하는 축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 펀드' 출시 15일 만에 마감... 1억 달성

정현을 익산시청후보가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며 개설한 '정 펀드'가 출시 15일 만에 성공적으로 마감했다.

정 후보측은 24일 "지난 9일 모집을 시작한 정(正, 淨, 情)펀드가 목표액 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 펀드 모집에는 총 147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실명, 원리금 상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했다. 펀드는 1구좌 1만원이며, 한도는 1인당 최대 10구좌였다.

펀드는 개설 직후부터 시민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가집자 중 20대, 30대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았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정(正, 淨, 情)펀드에 직접 찾아와 "회사 동료 6명이 모여 두 출마자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 정 후보가 제시한 일자리 정책 공약이 비전과 실현성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해 끼여이 펀드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한열에 사는 60대는 "지난 2년간 인사, 공사 비리 잡음 한 번 없었다. 앞으로 4년간 정당한 시장이 되어 익산 시민의 존경 받기를 바란다"며 정현



을의 희망에 투자하기도 했다.

정현을 익산시청후보는 "익산 시민을 주주처럼 모시고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의미에서 개설한 정(正, 淨, 情)펀드에 보여준 높은 관심에 머리숙여 감사함을 드린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향한 시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오직 익산 시민만 비리보고 익산시의 발전만 생각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장애인체전 편의시설 조사

익산시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개최되는 제38회 장애인체육대회에 앞두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애인체전 참가자가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대대적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과 숙박업주부, 공공 명예감사원을 점검반으로 구성하여 장애인체전 예약숙박업소 72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편의시설 현황과 장애인 참가선수 유형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 숙박업소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설치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장애인체전 예약숙박업소는 황체어 진입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8월까지 설치하여 10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장애인체전 숙박업소 이용 불편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호 위생과장은 "이번 전수조사가 장애인체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대화합의 체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수산물특화단지 일원 환경정화활동

군산시는 등백대교 개통을 대비해 해당동 수산물특화단지 일원에 무단 적치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적치물을 제거하는 계도장을 배부했으며 자진철거 등불응하거나 고질적으로 적치된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직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센터, 공영주차장 및 도로변에 쌓인 각종 적치물을 정비했다.

시는 정비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적치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독려하는 계도장을 배부했으며 자진철거 등불응하거나 고질적으로 적치된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직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하수처리시설 "알고보니 깨끗하네"

시, 시설관리에 힘써... 시민 발길 이어져

익산시는 대표적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발길이 이어져 올해(1월~5월)만 벌써 300여 명 정도가 견학차 방문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대표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강동에 위치한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황등면에 위치한 북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100,000톤/일)은 1995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일평균 88,000톤의 익산 시내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북부 공공하수처리시설(30,000톤/일)은 2008년도에 준공

되어 일일 평균 20,000톤의 익산 북부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하수처리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물 절약의 중요성을 알려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한 한 시민은 "하수처리시설이 혐오 시설이라 악취가 심하고 위험할 줄 알았는데 직접 와보니 시설도 쾌적하고 주변 환경도 좋아 그동안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노인 살기 좋은 도시 건설할 것"

김영배 후보, 문화해설위원 등 일자리 창출·복지정책 수립

6·13 지방선거 익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약속하고 나섰다.

김영배 후보는 25일 익산시장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2016년도 통계) 고령화율 18%를 넘어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사이에 들어섰다"며 "복합적인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후보는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백제역사문화벨트를 축으로 하는 미래 성장동력 건설을 다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해설위원 등 노



인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그들이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또 중앙선거구 협력해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나서 선제적인 복지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는 동부권·북부권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과 국립 치매재활병원 유치 등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확충과 건강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고령화율, 미흡한 고령화정책을 해결하겠다. 고령화친화 선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경암동 세탁봉사 벌여

군산시 경암동은 25일 자생단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세탁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는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이동세탁차량을 지원 받고 통장단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국서부발전군산발전본부 직원, '우리아들 똑딱' 봉사단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관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령빨래를 세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및 장애인 40세대를 대상으로 봉사자가 직접 이불을 수거해 세탁 및 건조, 배달하며 대상자들의 인부를 묻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군산=김정훈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